



(주)두산
2014년 3분기 경영실적(잠정)

2014. 10. 30



Disclaimer

본 자료의 실적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는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가 자신의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합니다.

본 자료의 재무자료는 IFRS 연결 및 IFRS 별도 기준입니다.

Key Highlights

1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

2

3분기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전자의 전방산업 신제품 출시 및 PKG CCL 판매 호조, 산업차량의 호실적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3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10월 1일 자체사업 편입으로 신성장 모멘텀 확보 및 본격적인 생산, 수주활동 전개

4

적극적인 배당실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친화 정책 지속

I. 3분기 실적

II. 부문별 실적 및 전망

III. 연료전지 사업 전망

IV. Appendix

3분기 실적 (별도 기준)

-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및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1,400억원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증가, 전자는 전방산업 신제품 출시 및 PKG CCL 판매 호조, 산업차량은 내수 및 수출시장의 호실적 지속의 영향으로 실적 호조세 지속
 - 배당금 등은 KFC 매각대금 1,000억원 유입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13. 3Q	'14. 2Q	'14. 3Q	YoY	QoQ
매 출 액	4,188	4,477	5,841	+39.5%	+30.5%
영업이익 (%)	530 (12.6%)	205 (4.6%)	1,400 (24.0%)	+164.2% (+11.4%P)	+582.9% (+19.4%P)
▪ 자체사업	275	251	308	+12.0%	+22.7%
▪ *배당금 등	255	-46	1,092	+328.2%	-

* 배당금, 공통비 등

3분기 실적 (연결 기준)

- 3분기 연결 실적은 계열사 실적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
 - 자체사업은 전자의 전방산업 신제품 출시 및 PKG CCL 판매 증가, 산업차량의 호실적 지속, 배당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
 - 중공업 연결 등 실적은 계열사 수주지연 및 비수기/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

(단위 : 억원, %)

구 분	'13. 3Q	'14. 2Q	'14. 3Q	YoY	QoQ
매 출 액	51,606	52,994	49,433	-4.2%	-6.7%
▪ 자체사업	3,550	4,194	4,318	+21.6%	+2.9%
▪ 중공업 연결 등	48,056	48,800	45,115	-6.1%	-7.5%
영업이익 (%)	2,461 (4.8%)	3,285 (6.2%)	2,068 (4.2%)	-16.0% (-0.6%P)	-37.0% (-2.0%P)
▪ 자체사업	275	251	308	+12.0%	+22.7%
▪ 중공업 연결 등	2,186	3,034	1,760	-19.5%	-42.0%
당기순이익	-225	330	767	흑자전환	+132.4%

목차

I. 3분기 실적

II. 부문별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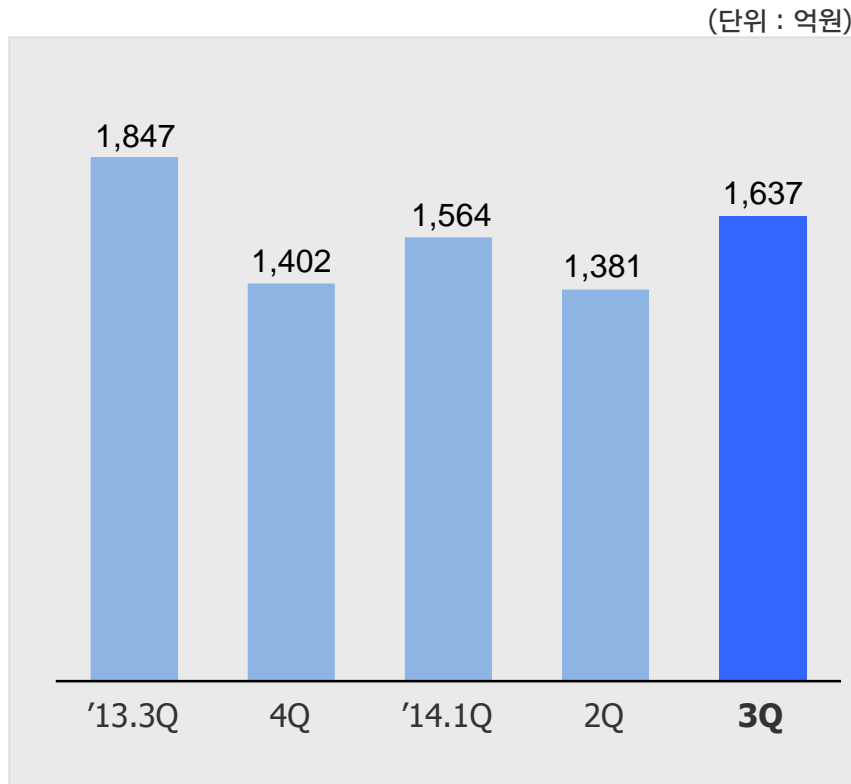
III. 연료전지 사업 전망

IV. Appendix

전자 – 3분기 실적분석(별도기준)

- 3분기 매출액은 1,637억으로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및 Package CCL 판매 증가로 전분기 대비 증가

분기별 매출액 추이



3분기 주요 추진 내역

1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추진

- 중화권(화남) 및 베트남 시장 확대
- FPC 소재 Full line up 구축을 위한 Coverlay 사업 10월부터 매출 발생
- I사, Q사 등 Global SET 사의 추가 Application 진입 (Package CCL)
- Circuit Foil Luxembourg 수율 개선을 통한 손익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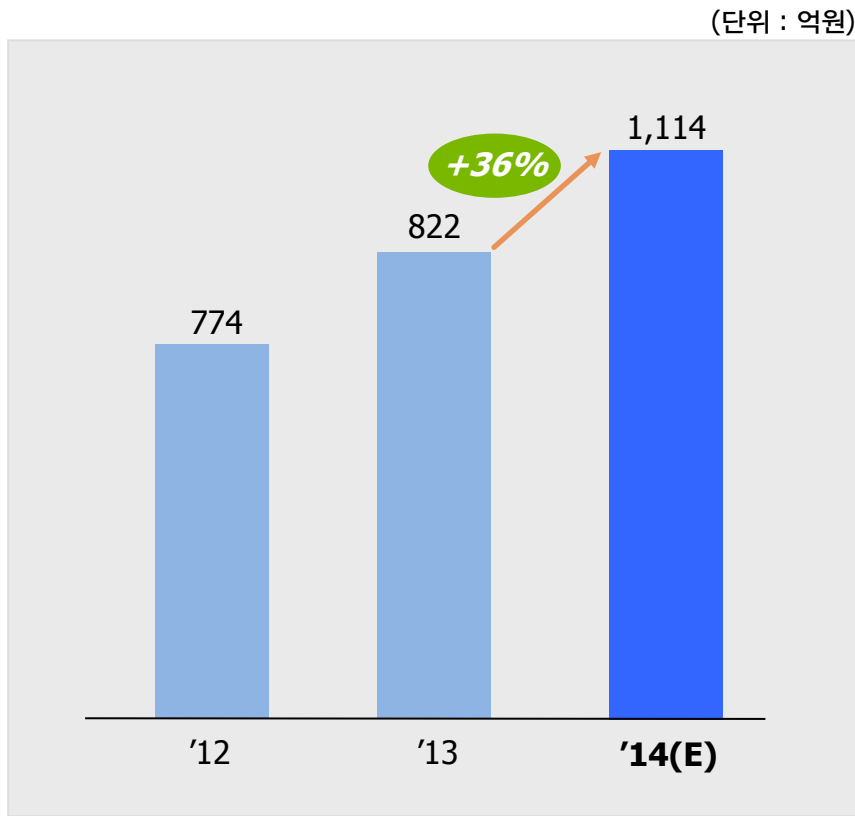
2

원가 혁신 추진 지속

- 동박, Film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인하
- 중화권 업체로 Sourcing 다원화
- 품종단순화, 공정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혁신

전자 - 4분기 전망 및 추진전략

Package CCL 매출 추이



4분기 추진 전략

1

Package CCL 매출 증대

- S사, H사 등 기존 고객에 대한 매출 호조 지속
- I, N, K사 향 신규 Application 판매 확대

2

고객사 다변화

- 개발 영업 및 기술 지원 강화로 중화권 거래처 확대
- A사 및 중화권 set사向 판매 확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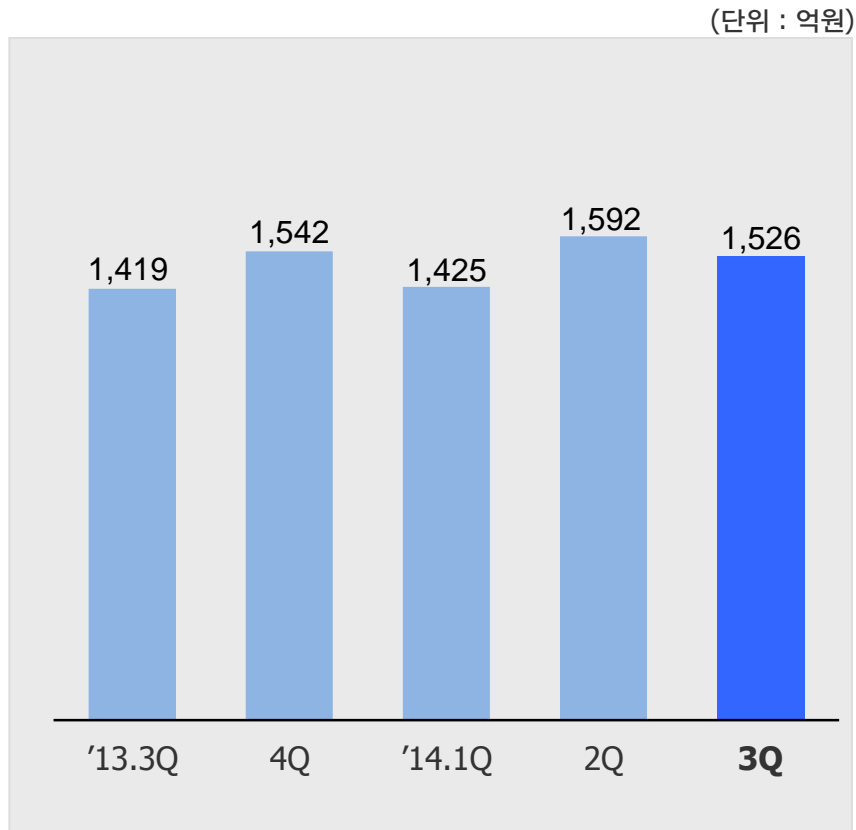
추가 성장 기회 및 수익성 확보

- 자동차 전장용 CCL 등 인접 영역으로 Line-up 확대
- Circuit Foil 과의 시너지 확대 및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Film 등 추가 사업기회 모색

산업차량 – 3분기 실적분석(별도기준)

- 내수 점유율 확대로 내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 성장하였으며, 선진 시장의 경기회복 및 상반기 부진했던 동유럽, 대양주 등 기타 신흥 지역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

분기 별 매출액 추이



3분기 주요실적

1

내수 Leadership 강화

- 중소형 기종의 안정된 공급과 Fleet Deal 확보를 통한 내수 M/S 1위 유지 (52.2%, 전년 동기 대비 1%P 증가)
- 비수기 시즌 Promotion 통한 시장 대응 및 판매 강화
- 전동차량 주요부품 보증 확대로 경쟁사 대비 A/S Coverage 및 Brand 가치 우위 확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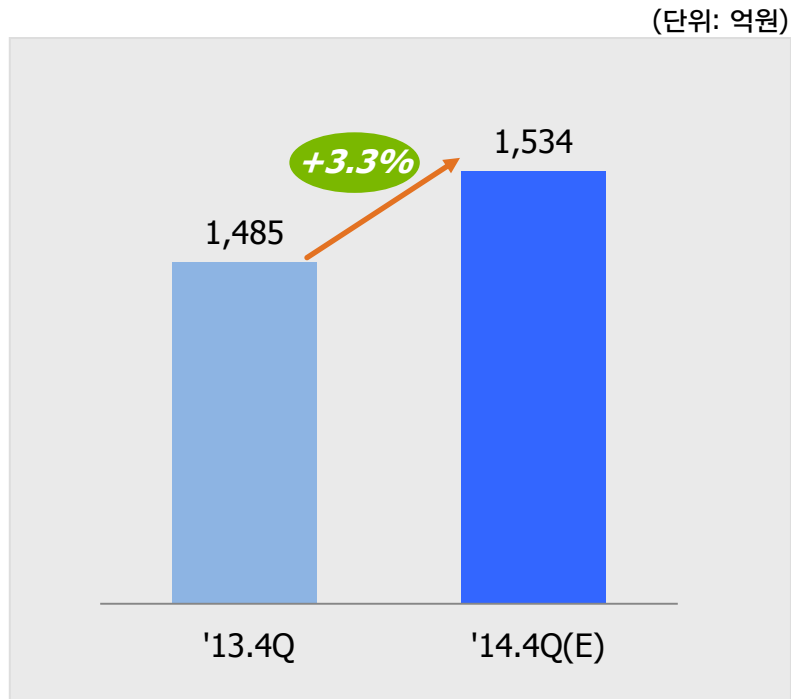
해외 시장 Positioning 강화

- 유럽시장 T4 차량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대응, 북미·유럽형 Class 3 기종 도입을 통한 Product Line-up 강화
- 북미 딜러 Meeting 개최, 영국 G2 엔진 기종 Launching 행사를 통한 Brand 가치 및 기술력 홍보 활동
- 신흥시장 Fleet Deal 확보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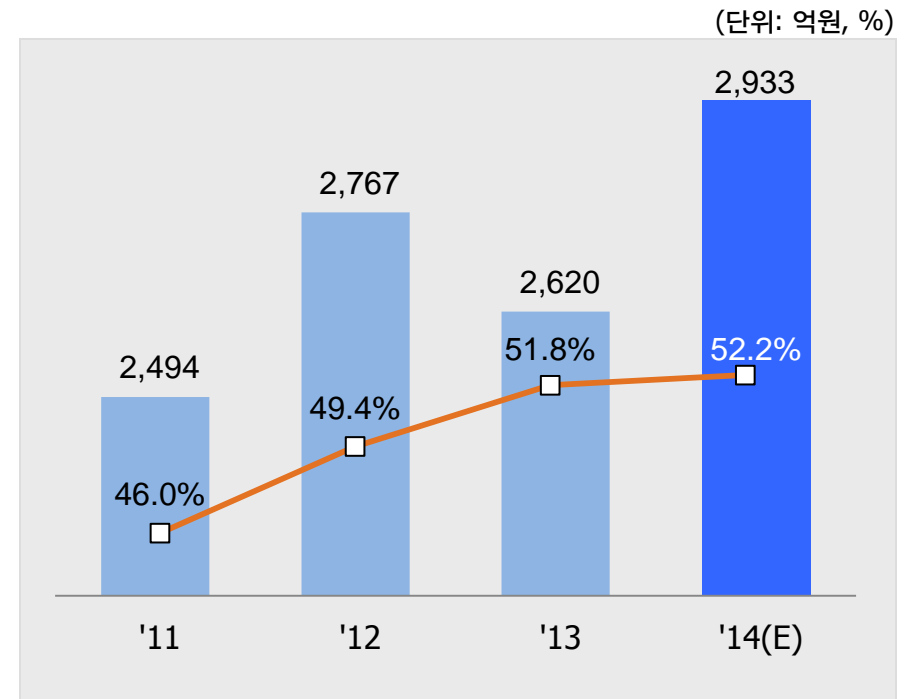
산업차량 – 4분기 전망 및 추진전략

- 신흥시장 감소 및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선진시장 매출 증대로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 전망
 - 내수 딜러 별 Incentive 프로그램 및 중형 기종 임대업 판매촉진 및 지원
 - 북미·유럽시장 T4 기종 출시 및 Class 3 등 Product Line-up 강화
 - 중남미 딜러 회의 개최를 통한 신흥시장 Network 강화 활동
 - 중동/아프리카 지역 딜러 대상 전기종 Service Training 실시를 통하여 고객 가치 증대 활동 지속

'14년 4분기 실적 전망



내수 M/S 및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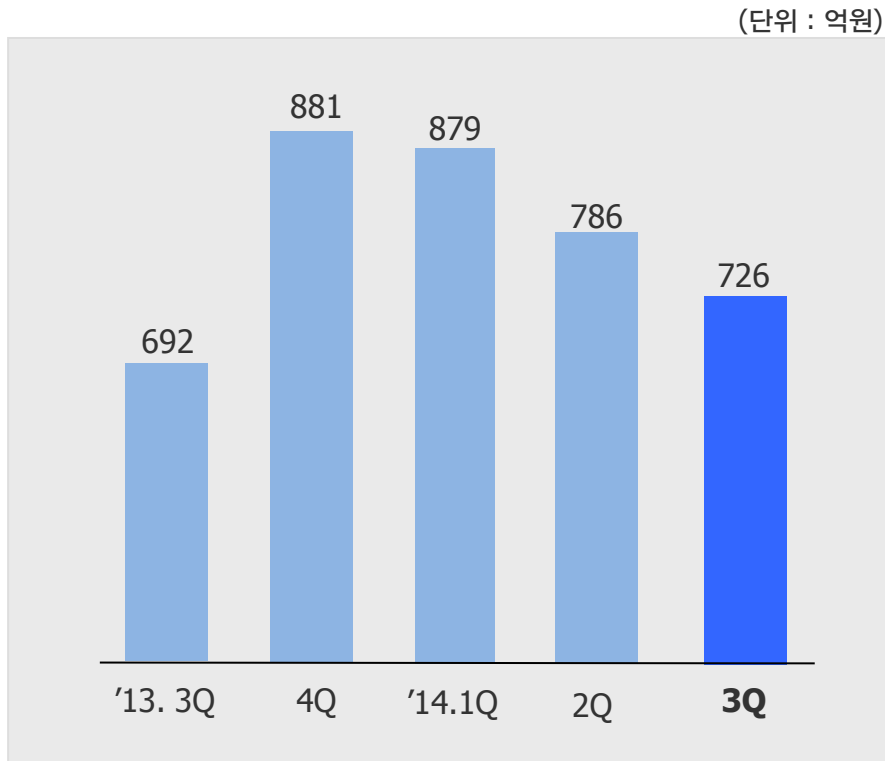


* '13년 4Q 별도 매출액은 해외법인 배당금 57억원 제외

모트롤 - 3분기 실적분석(별도기준)

- 3분기 매출액은 726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5% 상승, 영업이익은 3억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개선
-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지속 및 유럽시장 둔화 지속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흑자 달성

분기 별 매출액 추이



3분기 주요 추진 내역

1

고객 및 제품 Portfolio 다각화

- 중국 Local 고객사 주행/선회/MCV 신규 공급 및 개발검토
 - X사 선회 판매개시, L사 펌프 테스트 중
 - Su사 주행3종 사양 협의, 주행/선회 추가 6종 개발 중
- 선진사 개발 및 판매 확대 지속
 - J사 주행 2종 Pilot 수주, H사 주행, J사 주행/선회 내구 테스트, B사 주행성능 테스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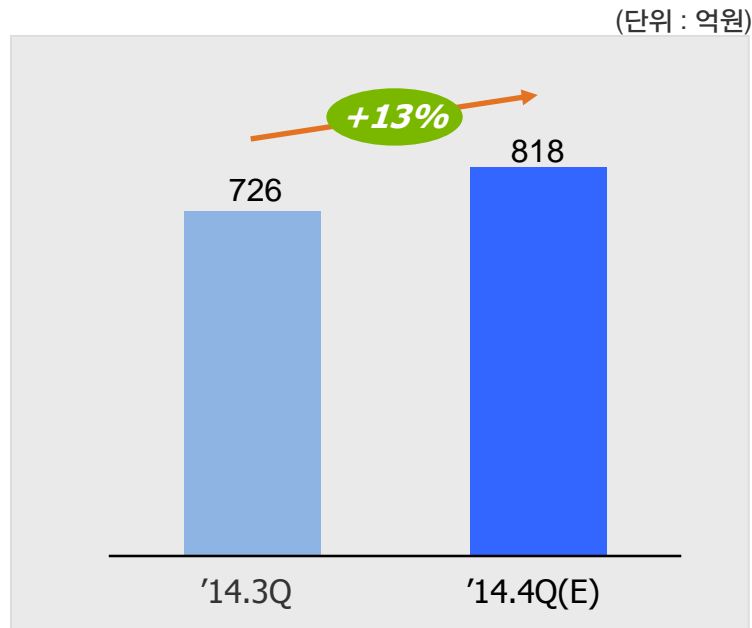
수익성 개선

- 중국 Local Sourcing 추진 가속화
 - S사 주행1종 적용 공급 / 2차분 Pilot 제작
- 창원 생산 공정 효율화 및 제조원가 절감 강화
 - 도장공정 통합, 물류 자가화, 소선회 라인 자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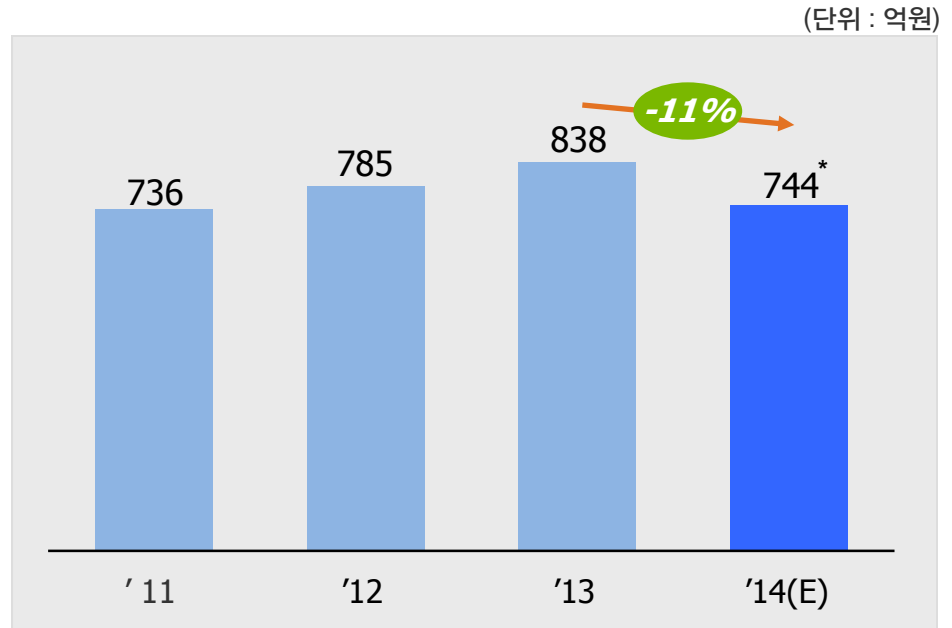
모트롤 - 4분기 전망 및 추진전략

- 중국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형업체 위주로 성수기를 대비한 물량을 적극 확보하고, 고객/제품 Portfolio 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 활동 지속으로 4분기 매출 증대에 집중(3분기 대비 13% 성장 목표)
 - 중국 Local maker 및 선진 고객사와 진행 중인 양산공급 준비 지속
 - X사 이외 Set-base 판매 확대
 - Local Sourcing 확대 적용을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 전사 과제인 제조원가 절감 및 전사적 고정비 절감노력 지속

4분기 매출 전망



고정비 전망



* 인력 합리화 일시 비용 제외

목차

I. 3분기 실적

II. 부문별 실적 및 전망

III. 연료전지 사업 전망

IV. Appendix

연료전지 — 사업추진 배경



- 다른 기술, 제품, 지역, Value chain의 강점을 가진 두 업체를 동시 인수/합병하여 시너지 극대화
 - CEP는 중대형 발전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FCP는 소형 발전 기술을 보유, 국내 가정용 시장의 90%이상 점유율 확보
 - CEP는 FCP의 국내 영업망을 통해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FCP는 CEP를 통해 기존의 생산규모 한계를 벗어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미국 주택용 시장 판매망 확보

- (주)두산의 기존 보유 역량인 **Operational excellence**와 **Global network**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지속적인 시장확장에 기여

연료전지 — 사업 진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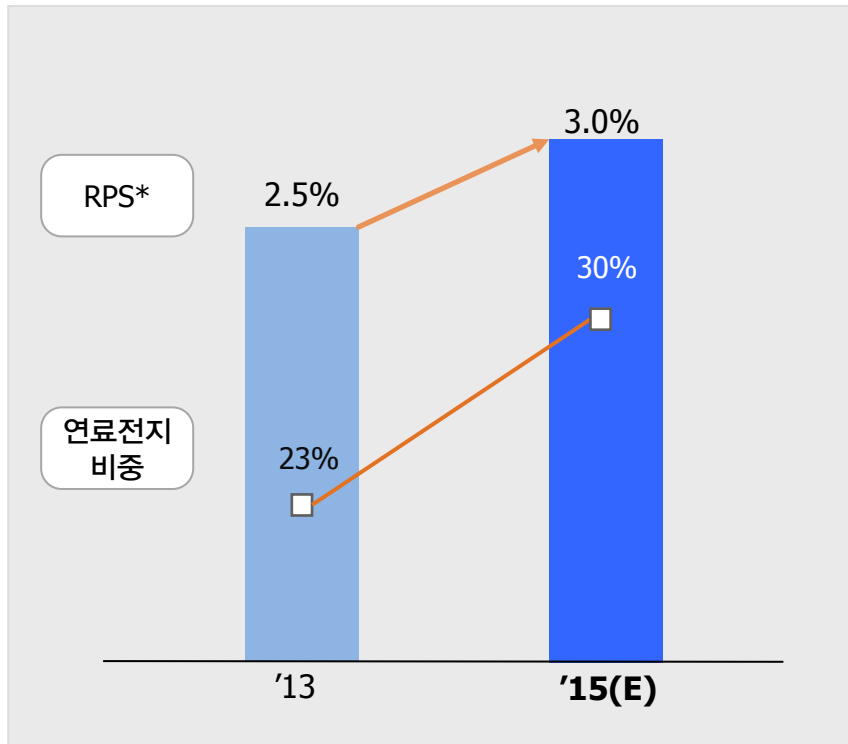
- 2014년 7월 미국 CEP 인수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의 Operation 정상화 및 수주 활동 강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주요 경영 Milestone	Doosan FCA (미국)	퓨얼셀BG Korea BU (한국)
2014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CEP 인수 (18일) • Doosan FCA 비전 선포식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osan FCA PMI 개시 • 현지 인력 40명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LNG터미널 연료전지 발전소 MOU 체결 (125대, 50MW 규모)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전략 Workshop 개최 • 영업 / Supply Chain 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퓨얼셀파워 합병 PMI 개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퓨얼셀파워 합병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부품 내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FC 서비스 조직 및 체계 정상화 • 대형 발전 프로젝트 수주 합의 도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 퓨얼셀BG 출범 (1일) • Korea BU 비전 선포식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인력 90명 돌파 • B사 1대 납품 (기존 구매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발전사 수주 추진 • 군용 연료전지 개발 완료
11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판매 본격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ll 생산 라인 재가동 • 조립 라인 재가동 준비 • 건물용 연료전지 수주 추진 중 (M400 제품 최대 12unit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발전 프로젝트 수주 추진 중

연료전지 — 국내 수주 환경

- 타 신재생에너지 대비 장점 및 정부의 RPS 증대 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연료전지 수주가 확대될 전망

RPS 및 RPS 내 연료전지 비중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중 의무화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연료전지 성장 가능성 증대

1

타 신재생 에너지 대비 장점 보유

- 설치가 용이(위치, 면적), 운영시간에 제약이 없으며 전력 외 열을 이용하여 난방 / 온수 공급가능
- REC* 가중치가 2배로 RPS 충족
- 환경오염, 소음 등의 이슈 적음

2

정부의 RPS 증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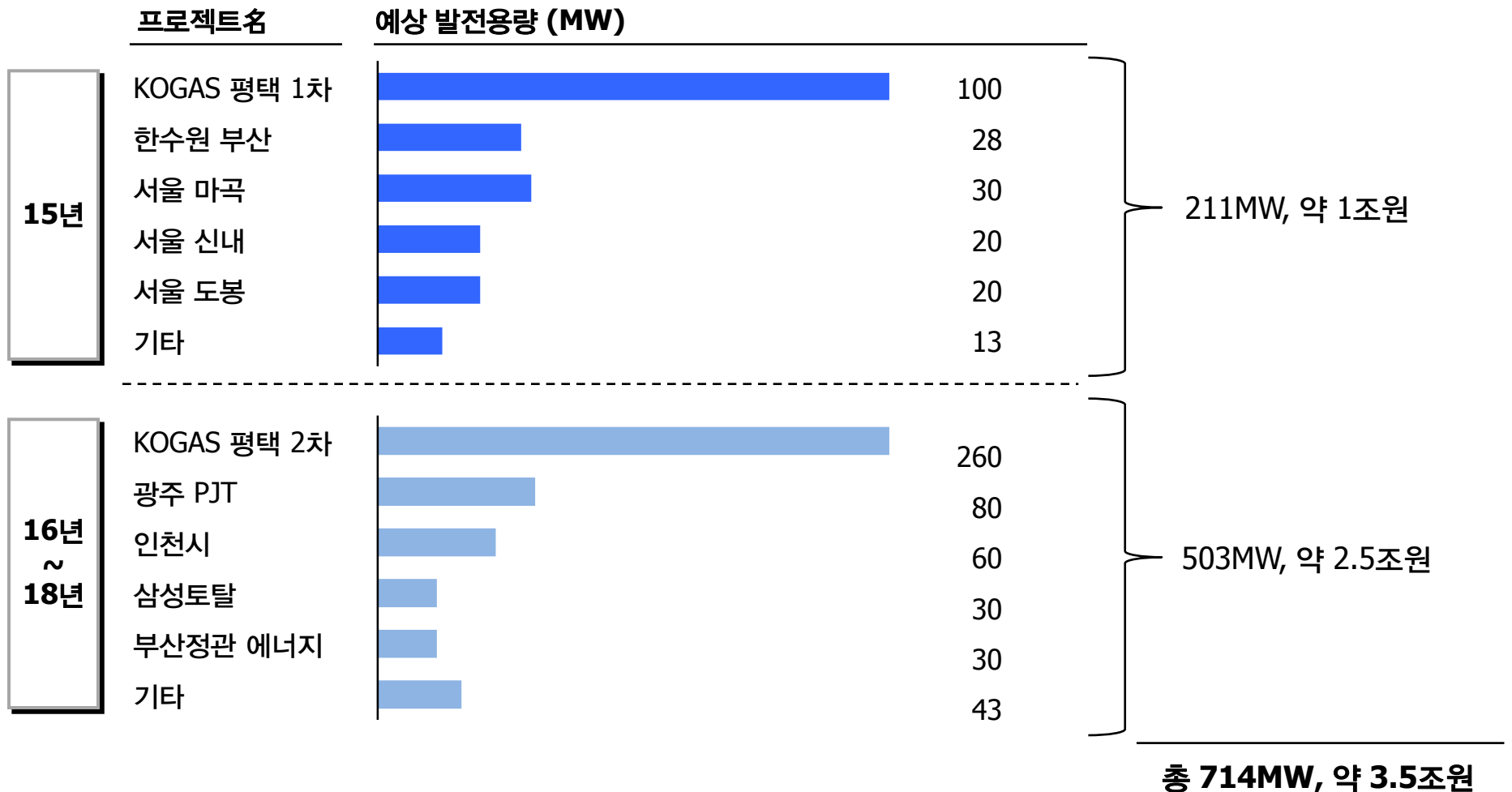
- '12년 2%를 시작으로 '24년 10%까지 증대 계획
- 바이오 에너지 혼소발전**을 통한 RPS 이행을 규제
 - 우드펠릿 등의 수입량 규제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혼소발전 :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

연료전지 — 국내 수주 Pipeline

- 향후 5년 내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현재 예상되는 수주 Pipeline만으로도 700MW 이상의 규모가 예상되며, 두산은 기술 및 원가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



연료전지 — 성장 및 경쟁 전략

기술적 경쟁력 기반

- 경쟁사 제품대비 수명, 효율, 가동온도, 가동시간에서 우위
 - 내구성 / 경제성 / 운영 유연성 홍보

1

수주 경쟁력 확보

- 제품 경쟁성 우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
 - 서비스, 마케팅, 영업 인력 확충
 - 국내 발전사 대상 서비스 지원 및 Spec-in 활동

2

원가절감

- Cell Stack 성능 향상, 한국형 모델 개발, 발전용 모델 개발 등 R&D 활동
- 주요 Supplier 관계 강화 및 필요시 내재화, 공급선 다변화 병행
-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 비효율 제거

3

Capex. 투자

- 한국 PAFC 공장 설립 추진
 - 설비 투자 및 생산직 고용
 - Local Sourcing 발굴 병행
- 부품 내재화에 따른 생산라인 구축

연료전지 – PAFC 방식의 경쟁력

	PAFC	강점
수명	✓ 8~10년	내구성 및 유지비용 측면 우위
효율	✓ 총 효율 90% (발전 효율 40%)	열 활용 병행 시, 높은 경제성
가동 온도	✓ 170~200도	내열성 낮은 부품 등 채택 가능
초기/재가동 시간	✓ 6시간	Down time이 적고, 유연한 운영 가능

연료전지 — 원가 절감 계획

Cost Reduction (단기/중장기)

1

제품 R&D 활동

- 핵심 부품이며, 원가 비중이 높은 Cell Stack 성능 향상 및 제조 효율화 달성
- 한국형 모델 개발을 통하여 부품 원가 절감 및 향후 한국 생산에 대응
- 부품 슬림화 및 발전용 모델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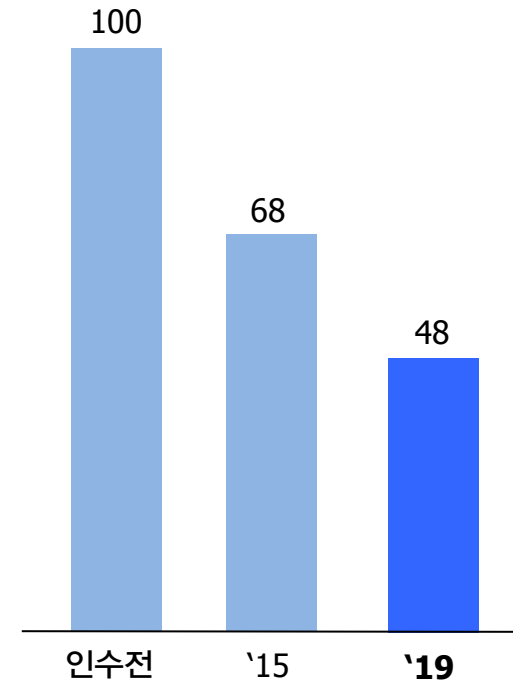
SCM 역량 강화

- 주요 Supplier들과 관계 강화를 통한 물량 확보
 - 공급선 대체 및 Insourcing 검토 병행
- 특허 / 공정 등 핵심 Knowledge 보유 부품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
 - 부품의 안정적 확보 및 협상을 통한 가격인하 달성

3

생산 효율 개선

- 공정/ Test 자동화율을 높여 제품 품질 제고
- 공정 최적화를 통한 체계 구축



- '19년까지 인수 당시 원가의 48% 수준 달성

목차

I. 분기 실적

II. 부문별 실적 및 전망

III. 연료전지 사업 전망

IV. Appendix

Appendix. 재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별도 재무상태표	
	'14. 2Q	'14. 3Q
유동자산	6,776	7,366
비유동자산	27,180	28,008
자산총계	33,956	35,374
유동부채	6,921	7,631
비유동부채	7,203	6,918
부채총계	14,124	14,549
자본금	1,329	1,348
자본총계	19,832	20,824
부채비율	71%	70%

차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연결 재무상태표	
	'14. 2Q	'14. 3Q
유동자산	133,420	135,071
비유동자산	185,860	187,332
자산총계	319,280	322,403
유동부채	134,143	133,256
비유동부채	97,281	100,580
부채총계	231,424	233,836
지배회사지분	29,740	30,365
자본총계	87,856	88,567
부채비율	263%	264%

(단위 : 억원)

구 분	별도재무제표 기준	
	'14. 2Q	'14. 3Q
은행차입금	3,515	3,487
회사채	5,300	5,300
기타	529	529
차입금	9,344	9,316
현금	775	1,062
순차입금	8,569	8,254
순차입금 비율	43%	40%

E O D